

# “지방 소멸 막는다” 전남도, 12조9466억원 추경안 제출

### 본예산보다 7005억 ↑ 출생수당·외국인 유치·정착 지원 초점 청년 주거·복합문화공간 확충... 촘촘한 돌봄 정책 강화도 ‘눈길’

올해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향후 18년 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다. 또 외국인 주민 유치·정착을 위한 시설로 새롭게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부족한 청년 주거·복합문화공간 확충과 촘촘한 돌봄 정책 강화에도 신규 예산을 편성해 눈길을 끈다.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2조 946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12조 2461억원보다 7005

억원(5.7%) 증가한 규모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수당, 외국인 유치·정착 지원, 청년 일자리 확충과 생활 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극심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구·청년지원 및 복지분야 예산으로 42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대표적으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48억원을 처음 반영했다. ‘318프로젝트’는 국가·광역·기초지자체 등 3자가 출생아 0~17세까지 18년간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월 22개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8 프로젝트’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달 전남도가 10만원, 시·군이 10만원 등 모두 2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정부의 아동수당(10만원)은 7세까지만 지원되고 있는 반면, 전남은 소득에 관계없이 17세까지 출생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전국 최초다.

또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데 따라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3억원)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2억원)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4억 5000만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외국인 주민·유치·정착을 지원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으로는 934억원을 증액했는데, 농번기 돌봄지원(5억 2000만원),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11억 7000만원), 시설

하우스 일조량 감소피해 예방 시범사업(2억 3000만원),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13억 2000만원), 팔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구축(12억원), 김 산업 진흥 구역 지원(65억원), 2024 전남 김밥 페스티벌(2억 8000만원) 등의 사업이 새롭게 반영됐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50억원)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새롭게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 종합계획 수립 용역(1억8000만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4억원)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도 시작하고 ▲드론 실증 도시 구축(2억원)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원(2억 5000만원)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4억 5000만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기반 구축(18억원) 사업 등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된다.

이외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3억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 도민에게 생활자금 지원이 가능해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55억원)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3억원) 등도 편성됐다.

문화관광 분야 신규 사업으로는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6억원), 역사문화환경 정비(12억원), 코리아돌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3억원)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한 예산안”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제 380회 임시회를 열고 전남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농촌 일손돕는 공무원들** 영농철 전남 농촌지역에 필요한 일꾼이 84만1000명으로 추산된 가운데 전남도는 공무원들의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참여하는 등 영농철 일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직원 50여명은 지난 3일 무안 청계면 양파 밭에서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 <전남도 제공>

## 전남 ‘예능 영재’ 키운다

### 도, 음악·미술·무용 분야 101명 선발... 맞춤형 교습 지원

전남도가 음악, 미술, 무용 등에 재능 있는 예술 영재 계발을 위한 ‘2024 예능영재 키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인재는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재 육성을 위한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를 아낌있게 추진중이다. 예능영재 키움 사업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술 꿈나무(초·중·고, 학교밖 청소년 포함)들이 미래 예술인으로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문교습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는 총 172명이 지원해 1차 서류 심사 및 2차 실기·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101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예능 꿈나무들은 11월까지 매주 두

요일 전남예술고(무안)와 한국창의예술고(광양)에서 학교 교사나 전공실기 지도강사로부터 1대1 또는 소규모 교습을 받게 된다. 또 방학 기간에는 연주회·전시회 관람 등의 현장체험 학습 및 분야별 유명예술인 초청 강연을 통해 미래 예술인으로서의 꿈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계기도 제공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예술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전남의 청소년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맞춤형 지도를 통해 한층 성장하고, 예술고 진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의 각종 사업을 통해 도내 다양한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한국에너지공대, 지역 에너지 핵심 기관 역할 ‘톡톡’

### 도, 연구성과 발표회 취·창업 생태계 조성 지자체 공조 필요... ‘4개월 공식’ 총장 지명 급선무

한국에너지공대(이하 켄텍)가 지역 에너지 분야 핵심 기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개교 2년 만에 전국 최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한 켄텍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고 에너지 중심 도시의 핵심 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식인 켄텍 총장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는 지난 30일 켄텍 국제회의장에서 발표회를 갖고 에너지신소재·차세대그리드·수소에너지·에너지 인공지능(AI), 기후·환경기술 등 5대 에너지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

문승일 켄텍 연구원장은 “켄텍은 에너지신소재 플랫폼사업(425억원), 차세대그리드센터 사업(300억원) 등에서 핵심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무 켄텍 기획처장은 켄텍의 글로벌 인재 육성 현황을 소개하면서 국가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취·창업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현 가치창출센터장은 “현재 6개의 교수 창업이 이뤄졌으며, 향후 교원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공식인 켄텍 총장 선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수 1인당 확보 연구비가 연 10억원에 이르면서 올해 연구성과 국내 대학 10위권 안에 안착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점을 감안, 공식인 총장을 조속히 선임해 관련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켄텍 인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창업이 활발히 이뤄져 에너지 수도로 성장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 기업 중국 시장 선점 ‘청신호’

### 337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협약

전남지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선점에 청신호가 켜졌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전남지원단과 지난달 중국 상하이·베이징에서 5일 간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324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13만 달러 상당의 수출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국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전남지역 중소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전남에서는 농·수산물 9개사와 화장품 1개사 등 10개 업체가 참여, 135개 현지 바이어와 324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화장품 전문 기업인 지너스인터내셔널의 경우

상하이·베이징에서 8만 달러 규모의 미백크림 수출 협약을 체결했고 해조류 취급 업체인 해미푸드는 5만 달러 상당의 해조면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나머지 기업들도 각각 해조류 가공품, 농차와 유자차 등을 수출하고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하이 무역관은 한국 우수상품 샘플 전시회와 유명 해외 인플루언서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연계해 지역 기업들의 수출 판로 확대에 도움을 줬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국은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거대 시장으로, 지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